

48. 너희들의 모든 꿈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려놓아라! 모두 나에게 맡겨라.

2015.04.1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저희는 이곳을 곧 떠날 것이고, 저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희망과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모두는 할 수 있었거나 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 지구에서의 삶의 바람과 기대, 저희가 되고 싶었던 것, 저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때, 십대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때 가졌던 꿈들, 가정을 꾸리는 꿈, 직장에 대한 꿈, 사랑의 꿈 그리고 저희가 되고자 갈망했던 꿈들이요.

(예수님) 천국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너희들이 항상 원했지만 절대로 가지지 못했던 모든 도구를 가진 새로운 소명을 줄 거야. 천국에서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너희들의 이웃을 섬기는 기회들은 끝이 없을 거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은 끝이 없을 거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끝이 없을 거야. 천국에서 너희들은 모든 삶의 희망과 꿈들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그 장소를 준비하러 갔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진정으로 너희들을 위한 장소.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 애완동물 그리고 사랑하는 동물들, 모두가 너희들의 집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천국에서는 어떤 것도 너희들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어떤 것을 꿈꾸고 그 꿈은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갈망하였던, 지구에서 절대로 완성시킬 수 없었던 능력들로 너희들은 꾸며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더이상 좌절과 실망이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행복, 기쁨, 성취를 발견하게 될 거야. 나의 신부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전보다 더 나를 가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대집회에서 찬양할 것이고, 너희들은 숲에서, 해변에서, 사바나에서 나를 찬양할 거야.. 감사와 찬양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언어가 될 것이고, 절대로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항상 진리의 광채가 너희들의 주위를 비출 거야.

너희들 중 일부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한번도 알았던 적이 없었어.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어. 너희들 중 일부는 진짜의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을 한번도 알았던 적이 없고, 삶은 너희들에게서 그것을 계속해서 빼앗아갔지만 천국에서 너희들은 기쁨으로 살게 될 거야.. 기쁨은 너희들의 혈관을 통해 흐를 거야. 너희들 중 일부는 깊고 의미있는 관계를 한 번도 형성할 수 없었어. 하지만 천국에서는 진정한 친구들이 모든 곳에 있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춤을 출 것이고, 수영을 할 것이고, 탐험하고 발견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과 신성함의 매우 아름다운 영역을 경험할 거야.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던 어린시절이 너희들에게 회복될 거야. 너희들의 부모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과 그들의 안에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고, 구부러진 길들은 곧게 될 거야.

곧 너희들은 새로운 집에서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완전한 자유의 삶, 가능성들로 가득찬 삶, 너희들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삶.

나의 신부들아, 이제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 자신을 멀어지게 해라. 휴거 후 남겨질 너희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의 손바닥 안에 있어. 그들을 위한 너희들의 사랑의 기도는 나의 마음에 도달하였고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들도 곧 태양처럼 빛나는 거룩함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의 모든 구부러진 길들은 곧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오직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살 거야.

이것들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야. 너희들은 지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 여기에서 너희들의 일은 끝났지만 너희들의 영원한 삶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나의 소중한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을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나는 지금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간청해.

너희들의 모든 꿈들, 모든 희망들, 모든 소원들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놓쳤던 모든 것들, 실패한 너희들의 모든 계획들, 절대로 알지 못했던 너희들의 희망들, 너희들의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던 모든 것들, 너희들이 주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할 수 있었거나 했어야 했던 모든 꿈들을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그 멋진 기억들과 슬픈 기억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을 주어라. 너희들이 끝내지 못한 것들, 절대로 오지 않았던 돌파구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너희들이 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을 불쾌하게 하고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라.

무너진 관계에, 소원해진 자녀들에게 작별을 고해라.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 한번도 입맞춤해주지 못했던 손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그것들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 너희들이 다르게 했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발 앞에 내려놓아라.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라. (에스겔34장11~16절 참조)